

全南地域 先史考古學의 研究成果*

崔盛洛**

목 차

- | | |
|--------------|---------------------|
| I. 머리말 | Ⅲ. 전남지역 선사시대 유적의 성격 |
| II. 유적의 조사현황 | 1. 선사시대 유적의 특징 |
| 1. 구석기시대 | 2. 지역 구분과 타 지역과의 비교 |
| 2. 신석기시대 | 3. 선사시대 사회의 변천 |
| 3. 청동기시대 | IV. 맺음말 |
| 4. 철기시대 | |

< 요약 >

전남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조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활발하였고, 1990년 이후 유적의 발굴조사는 급증하였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영산강유역에서도 구석기시대 유적이 활발하게 조사되었고, 지석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철기시대의 패총과 무덤인 주구토광묘가 새로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대의 편년과 유물·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남지역은 문화적으로 동부와 서부 등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시대의 문화양상에 따라 충청지역이나 영남지역과 관련되었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사회가 평등사회에서 계층화된 족장사회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시대의 문화상이나 대외관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것은 고고학 자료의 수집이 주로 제한적인 구제발굴에 의존하고 있고, 고고학연구도 유물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이 뚜렷한 학술발굴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고학자료의 분석이 좀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45회 추계학술발표회 발표문을 수정 기고한 논문임.

**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I. 머리말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지역은 선사시대 이래로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이 지역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곳곳에서 확인됨으로써 수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임을 알게되었고,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꽃피었던 곳이다.

전남지역에서 유적이 조사된 것은 일제시대부터이다. 당시 나주 반남고분이 발굴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이후 1970년대 초까지 전남지역의 유적은 외부기관이 간헐적으로 조사하였을 뿐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전남대학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유적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실시된 영산강유역 수몰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는 본격적인 학술조사의 시작이었다¹⁾. 1980년대에는 국립광주박물관과 목포대학교 박물관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지석묘, 주거지, 패총, 고분 등 다양한 유적이 발굴되었다. 조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영암 장천리유적, 해남 군곡리패총, 여수 송도패총, 영암 시종면 일대의 고분군 등이 있다. 1986~1988년에는 전남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주암댐 수몰지구에 대한 대규모의 발굴이 있었다.

1990년대에는 새로이 조선대학교 박물관과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전남 동부지역에서도 많은 유적이 조사되었고, 뒤이어 호남문화재연구원과 전남문화재연구원 등 전남기구가 창설되면서 유적조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규모 조사로는 1993~1994년에 호남고속도로확장구간 발굴, 1998~1999년에 고흥-별교국도확장공사구간 발굴, 1998~2000년에 서해안고속도로구간 발굴과 1998년 이후 계속되는 탐진댐 수몰지구 발굴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전남지역의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는 점차 활발해지면서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광주박물관은 1998년에 '영산강유역의 고대문화', 2000년에 '호남고고학의 성과'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 바가 있다²⁾.

본고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대표적인 유적조사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의 선사시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전라남도, 1976, <<영산강수몰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2) 국립광주박물관, 1998, <<영산강의 고대문화>>.

국립광주박물관, 2000, <<호남고고학의 성과>>.

II. 유적의 조사현황

전남지역의 선사시대는 한국고고학에서의 시대구분과 같이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철기시대³⁾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시대 중요한 유적의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석기시대

1) 조사현황 및 주요유적

전남지역에서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된 것은 1960년대이나 학술적인 발굴조사는 1980년대 후반 주암댐 수몰지구의 발굴에서 이루어졌다. 즉 순천시 신평리·덕산리·우산리, 화순군 사수리 등지에서 구석기유물이 확인되었다⁴⁾. 또한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와 입면 송전리에서도 구석기시대 후기로 추정되는 석기가 각각 발견되었다⁵⁾. 이들 유적에서 발견된 구석기들은 대체로 구석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유물로 알려져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3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본격적인 구석기유적의 발굴은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순천시 죽내리유적과 월평유적이 조사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의 전형적인 유물들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에서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광주, 나주, 영암, 무안, 함평, 영광지역에서 각종 구석기유물이 수습되었다. 전남지역에서 새로이 확인되거나 발굴된 유적은 다음과 같다.

(1) 순천 죽내리유적⁶⁾(그림 1)

이 유적은 순천시 황전면 죽내리에 위치하며, 섬진강의 지류인 황전천 옆에 자리잡고 있으며, 1996~1998년 사이에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층의 깊이는 5m에 이르는데

3) 한국고고학에서 선사시대의 범위를 구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필자는 古墳이 출현하기 이전인 철기시대까지를 선사시대로 설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

4) 임병태 외, 1988, <신평리 금평 구석기>, <<주암댐수몰지구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V)>>, 전남대 박물관.

이용조 외, 1988, <우산리 곡천 선사유적>, 앞책(V).

이선복 외, 1990, <신평리 금평, 덕산리 죽산 후기 구석기유적>, 앞책(VII).

이용조 외, 1990, <우산리 곡천 구석기유적>, 앞책(VII).

황용훈 외, 1990, <죽산리 '가' 지구유적>, 앞책(VII).

5) 이선복 외, 1990, <<옥과 구석기유적>>, 서울대학교 박물관.

6) 조선대 박물관, 2000, <<순천 죽내리유적>>.

모두 네 개의 문화층으로 이루어졌다. 구석기시대 중기에 속하는 맨 아래 문화층에서는 대형의 응회암 자갈에서 격지를 깨어내어 주먹도끼, 주먹자르개, 긁개 등을 만들었고, 구석기시대 후기의 늦은 시기에 속하는 맨 위 문화층에서는 아주 작은 석기인 돌날과 줌돌날을 포함하여 매우 정교한 잔손질로 만든 밀개, 긁개 등이 출토되었다.

여기에서는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그 상한은 약 12만 년 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2) 순천 월평유적⁷⁾

이 유적은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월평마을에 위치하는데 보성강의 지류인 송광천을 끼고 있으며, 1998년 조선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후기의 늦은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스페찌르개, 줌돌날몸돌, 밀개 등이 출토되었고, 특히 몸돌, 격지, 부스러기가 밀집하고 있어 석기제작소로 추정된다.

(3) 광주지역의 구석기유적⁸⁾

광주지역에서 구석기유물은 첨단과학단지 내의 유적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즉 봉산들에 서 찌개 1점이, 산월들에서 긁개 1점, 돌날몸돌 1점, 격지 5점을 비롯한 모두 12점의 뎀석기들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매월동 월산마을에서 동산마을로 들어가는 중간지점에서도 3점의 뎀석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상무택지개발지구의 시굴에서는 중기 구석기와 후기 구석기의 두 개 문화층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몸돌, 격지, 여러면석기, 찌개 등이 수습되었다.

(4) 나주 및 영암지역의 구석기유적⁹⁾

나주지역에서는 동강면, 공산면, 세지면 일대의 여러 곳에서 구석기유적이 확인되었다. 주로 강가에 위치하는데 삼포강유역인 동강면과 공산면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발견된

7) 전라남도, 2000, <<전남의 선사와 고대를 찾아서>>, 88-91.

8) 이기길 외, 1995, <<광주 산월·뜯쇠·포산 유적>>, 조선대 박물관.

조선대 박물관, 1996, <경전선 호천-송전리간 철도 이설구간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유인물).

이기길 외, 1997, <<광주 치평동유적>>, 조선대 박물관.

9) 목포대 박물관, 1999, <<나주시의 문화유적-전남 나주시->>.

이현중, 1998, <영산강유역 신발견 구석기유적군>, <<호남고고학보>>5.

목포대 박물관, 1999, <<문화유적 분포지도-전남 영암군->>.

구석기시대 유물로는 몸돌, 찌개류, 여러면석기 등과 함께 단면 주먹도끼(uniface), 양면 주먹도끼(biface), 칼형도끼 등도 있다. 영암지역에서도 지표조사를 통해 많은 구석기유물이 채집되었다.

(5) 무안 피서리유적¹⁰⁾

무안공항 건설부지 내의 망운면 피서리 유적은 바다를 바라보는 완만한 구릉에 위치한다.

이곳에서는 석영맥암류의 석재로 간단한 잔손질을 통하여 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유물로는 석영맥암제의 찌개, 굽개, 새기개, 흙돌, 석영제 자갈돌로 만들어진 찌개, 화강암제 망치돌 등이 있다.

(6) 함평 당하산유적¹¹⁾

목포대 박물관이 1999년 서해안고속도로구간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두 개의 문화층이 조사되었는데 아래 문화층은 중기 구석기시대일 가능성이 있으며, 위층은 좀돌날몸돌이 특징인 후기 구석기시대의 말기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7) 영광 마전유적과 군동유적¹²⁾

1999년 조선대 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유적이다. 마전유적에서 조사된 구석기시대의 문화층은 3개로 구분되는데 암갈색 찰흙층 상부(3문화층), 암갈색 찰흙층 하부(2문화층), 그리고 적갈색 찰흙층 밑(1문화층)으로 구분된다. 2, 3문화층의 석기는 석영맥암 또는 규암을 석재로 이용한 몸돌, 격지, 잔손질석기 등이고, 1문화층의 석기는 석영맥암제 소형 굽개와 격지, 응회암 석기 등이 있다. 군동유적의 구석기시대 문화층도 비슷한 양상이며, 석기에는 찌개, 여러면석기, 흙날, 굽개, 톱니날, 몸돌, 격지 등이 있으며, 석질에는 규암질과 화산암이 쓰인다.

2) 구석기시대의 연구성과

구석기유적은 보성강과 섬진강유역에서 먼저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주암댐 수몰지구에서 구

10) 최성락 · 이현중 · 김영희, 2001, 《무안공항 건설지역내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 목포대 박물관.

목포대 박물관, 2001, 《무안공항 건설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유인물).

11) 최성락 · 이현중, 2001, 《함평 당하산유적》, 목포대 박물관.

12) 전라남도, 2000, 《전남의 선사와 고대를 찾아서》, 35-39.

석기시대 후기의 유적이 확인된 이래로 순천 죽산리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중기, 즉 12만 년 전까지 올라가는 유적이 확인되었고, 순천 월평유적에서는 구석기시대 후기의 전형적인 유적이 조사되었다¹³⁾.

반면 영산강유역과 도서지역에서도 지표조사를 통해 다수의 구석기유적이 확인되었다. 나주, 영암지역과 압해도 등지에서 발견된 구석기는 자갈돌석기전통을 가진 것으로 구석기시대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⁴⁾.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구석기문화의 성격이 좀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또한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함평 당하산유적이나 영광 군동유적에서 조사된 성과를 종합한다면, 영산강유역은 구석기시대 중기 이래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왔음을 알 수 있고, 다양한 석기류가 발견됨에 따라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하게 한다.

2. 신석기시대

1) 조사현황 및 주요유적

전남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는 1967년경에 신안군 흑산도, 하태도, 가거도 등지의 패총유적이 있다¹⁵⁾. 이들 유적 중에 흑산도 패총이 일부 시굴되어 그 성격을 알 수 있었다. 처음 발견될 당시에는 신석기시대 후기의 것으로 서해안의 신석기문화와 관련이 많다는 것이다.

그 후 새로이 해남 두모패총, 신안 지도 어의도패총, 여수 송도패총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여수 송도패총은 처음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남해안의 신석기문화와는 관련성이 깊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장흥 오복리와 함평 장년리 당하산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신석기시대 유적은 다음과 같다.

(1) 여수 송도유적¹⁶⁾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인근 섬인 송도(松島)에 위치하고 있다. 1989년과 1990년 국립광주박

13) 이기길, 2001, <호남 내륙지역의 구석기문화>, <<호남지역의 구석기문화>>, 제9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14) 이현중, 2001, <전남 서해안 도서지역의 구석기문화>, <<호남지역의 구석기문화>>, 제9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15) 김원용·임효재, 1968,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6) 지건길·조현중, 1989·1990, <<돌산 송도>> I·II, 국립광주박물관.

물관에서 발굴한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이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표고 2~10m 내외의 비교적 낮은 언덕이며, 유적의 북동쪽으로는 경사가 급한 바위절벽이 바다에 면하고 있다. 유적의 범위는 남북 35m, 동서 30m 정도이나 유적의 중심부가 계단식 경작에 의해 깎이면서 일부가 교란되었다. 패각층 밑에서 2기의 집자리가 발견되었다. 집자리에는 타원형에 가까운 화덕시설을 갖추었다.

출토유물은 여러 가지 덧무늬 토기와 무늬없는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데 붉은칠 토기도 포함되어 있고, 석기류는 굽개, 찍개, 밀개, 찌르개 및 흑요석제 석기 등 다양하다. 이밖에 각 층에서는 굴·조개·소라 등 여러 종류의 패각류와 사슴·조랑말·멧돼지 등의 뼈와 이빨 등이 출토되었다.

(2) 함평 당하산유적¹⁷⁾(그림 2·3)

1999년 목포대 박물관이 서해안고속도로구간에 위치하는 유적을 조사하던 중 발견한 것으로 구석기시대의 문화층과 함께 신석기시대의 빗살문토기편과 석기류가 다량으로 발견되었고, 돌을 깔아 바닥을 만든 유구[敷石遺構]와 화덕자리 및 석기제작소 등이 조사되었다.

빗살문토기의 밑바닥은 뽀족하고 일부 편평한 것도 있으며, 표면에는 찍거나 새겨진 무늬를 가진 것으로 신석기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인다. 석기에는 돌도끼, 돌자귀, 미완성 석기 등이 있다.

(3) 장흥 오복리 바위그늘유적¹⁸⁾

2001년 목포대 박물관이 탐진댐 수몰지구에서 조사한 유적이다. 오복리 바위그늘유적에서는 소토와 함께 생활면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3개 층으로 구분되는데 1층은 표토층, 2층은 흑갈색부식토층, 3층은 적갈색을 띤 흑갈색부식토층이다. 출토유물은 1층에서 백자와 옹기편과 더불어 타날문토기편과 무문토기편이 있고, 2층에서는 숫돌, 석촉, 무문토기편이 있으며, 3층에서는 무문토기와 이중구연이나 직립구연에 단사선문(短斜線文)이 시문된 빗살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

17) 최성락·이현종, 2001, 《함평 당하산유적》, 목포대 박물관.

18) 목포대 박물관 외, 2001, 《탐진다목적(가물막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시·발굴조사 개요》.

2) 신석기시대의 연구성과

여수 송도패총의 발굴을 통해 전남지역 신석기문화의 성격을 일부나마 새롭게 밝힐 수가 있었다. 즉 전남지역의 신석기문화는 그 연대가 신석기시대 전기인 기원전 5000~4000년경 이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송도패총에서 출토된 덧무늬 토기는 이음납시와 함께 우리나라 동·남해안지방 신석기문화의 특징적인 문화요소이며, 흑요석재들도 주변지역과의 문화교류 및 전파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다¹⁹⁾.

최근 함평 당하산유적이나 장흥 오복리 바위그늘 유적이 조사됨으로써 신석기유적의 분포가 도서나 해안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내륙지역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산강유역에서는 아직까지 신석기유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나주 다시면 가흥리에서 발견된 기원전 1000년경의 벼 꽃가루[花粉]는 아마도 당시의 유적이 존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다²⁰⁾. 또한 나주지역 지표조사에서 신석기시대의 어망추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영산강유역에 신석기문화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석기시대의 생업은 수렵, 채집, 어로가 주를 이루었다는 연구²¹⁾와 호남 내륙지역에는 신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있어 남해안 신석기문화의 내륙으로의 진출로 해석하는 연구²²⁾도 있다.

3. 청동기시대

1) 조사현황 및 주요유적

전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주거지, 지식묘(고인돌), 석관묘, 적석목관묘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가 있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대부분이다. 처음 조사된 것은 광주 송암동 유적²³⁾이고, 뒤이어 영암 장천리 유적²⁴⁾과 순천 대곡리 유적²⁵⁾이 조사되었다. 그 뒤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대규모

19) 이상균, 1998, <호남지역 신석기문화 양상과 대외교류>, <<호남고고학보>>7, 호남고고학회.

20) 安田喜憲 외, <<韓國における環境研究史>>, 日本文部省 學術調査報告, 1980.

21) 김건수, 1998, <호남지방 신석기시대의 생업>, <<호남고고학보>>7, 호남고고학회.

22) 송은숙, 1998, <호남 내륙지역 신석기문화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7, 호남고고학회.

23) 최몽룡, 1977, <<광주 송암동주거지 발굴조사보고>>, 전남대 박물관.

24) 최성락, 1984, <<영암 청룡리·장천리지석묘군>>, 목포대 박물관

최성락, 1986, <<영암 장천리주거지>>, 목포대 박물관.

25) 최몽룡 외, 1989, <대곡리 도롱주거지>, <<주암댐수몰지구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6, 전남대 박물관.

서성훈·성낙준, 1989, <대곡리 도롱·한실주거지>, 상계서.

취락지가 발견되지 않고 후대의 주거지군과 함께 대체로 10여 기사 조사되고 있다.

지석묘의 경우 전남지방에는 2,200여 개군 19,000여기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²⁶⁾.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밀집된 곳이다. 지석묘의 형식은 크게 지상형(卓子式)과 지하형(바둑판식, 蓋石式)으로 분류되는데 전남지역의 지석묘는 대부분 묘실을 지하에 둔 지하식이다. 출토유물에는 토기류, 석기류, 청동기류, 장신구류 등이 있는데 특히 보성강유역과 전남 동부해안지역에서는 요령식동검, 동모, 구슬 등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이 분명하지만 그 중 일부는 세형동검이 사용되었던 청동기시대 후기에도 존재하였으나 철기문화의 등장과 함께 점차 소멸되었다.

석관묘(石棺墓)는 함평 해보면 용산리유적²⁷⁾과 월야면 순춘유적²⁸⁾에서 조사되었다. 석관묘계통으로 뚜껑만 돌로 사용한 석개토광묘도 있다(그림 4).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는 청동기시대의 석관묘에서 철기시대의 목관묘(木棺墓)로 변화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러한 유구는 화순 대곡리와 함평 초포리에서 조사되었다²⁹⁾. 화순 대곡리유적은 풍화된 암반을 굴착하여 상하 폭이 다른 이단토광(二段土壙)을 만들고 밑부분을 매장공간으로 이용하였다. 목관은 창원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통나무형 목관의 겉면과 유사한 점이 있다. 출토유물은 세형동검 3점, 팔주령(八珠鈴) 2점, 쌍두령(雙頭鈴) 2점, 동사(銅鈹) 1점, 유견동부(有肩銅斧) 1점, 정문경(精文鏡) 2점 등 전체 11점이다. 함평 초포리유적도 비슷한 형태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역시 다량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옹관묘는 항아리형 토기를 세우고 납작한 돌을 뚜껑으로 사용한 것으로 유아용 무덤이다. 이것은 곡성 연화리³⁰⁾에서 조사된 바가 있다.

최근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중요한 유적은 다음과 같다.

(1) 서해안 고속도로구간 발굴³¹⁾

1998~2000년에 이루어진 서해안고속도로구간 발굴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지석묘와 함

26) 이영문, 1993, <<전남지방 지석묘사회의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이영문·조근우, 1996, <<전남의 지석묘>>, 학연문화사.

27) 최성락·김건수, 2000, <<영광 학정리·함평 용산리 유적>>, 목포대 박물관.

28) 최성락 외, 2001, <<함평 순춘유적>>, 목포대 박물관.

29) 조유진, 1984, <전남 화순 청동일괄 출토유물>, <<윤무병박사 회갑기념논총>>, 통천문화사.

이건무·서성훈, 1988, <<함평 초포리유적>>, 국립광주박물관.

30) 국립전주박물관 1997, <곡성 연화리지석묘>,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1>>, 전남대 박물관.

31) 목포대 박물관 외, 2000, <서해안 고속도로구간 발굴조사 약보고서>(유인물).

개 다수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즉 영광 원흥리 마전 및 군동유적, 함평 진양리 중량유적 등지에서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특히 영광 마전 및 군동유적(그림 5·6)에서는 평면 원형과 방형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원형의 주거지가 앞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2) 화순 대신리 및 효산리 지석묘³²⁾

이 유적은 1995년 처음 발견되었다. 화순 춘양면 대신리에는 보검재에서 지동마을로 이르는 구릉에 130여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고, 도곡면 효산리에도 150여 기의 지석묘가 분포하고 있다. 지석묘는 자연석과 함께 산재되어 있으며, 채석장도 가까이에서 발견된 바가 있다. 1999년에는 대신리 지동마을 앞 논에 있는 지석묘가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기반식, 석곽식, 위석식의 하부에서 무문토기, 홍도, 석촉, 석부,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1998년에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었고, 이어서 강화, 고창지역의 지석묘와 함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 국도 27호선(고흥-별교) 확장구간 발굴³³⁾

1998~1999년간 목포대 박물관, 순천대 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이 공동으로 발굴하였다. 여기에서는 고흥 한천지석묘군을 비롯하여 7개군 180여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조사한 운대 지석묘에서는 요령식동검, 석검, 천하석제 곡옥 등이 출토되었다.

(4) 보성 동촌리유적³⁴⁾

이 유적은 2000년에 우연히 발견되어 2001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지석묘 2기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다. 지석묘는 북서-남동향으로 길게 이어지는 구릉의 중앙에서 남쪽에 치우쳐 1m 가량 거리를 두고 축조되었다. 독특한 축조방법을 가졌는데 너비 10m, 깊이 3m에 이르는 대형이다. 축조방법은 기반토인 황갈색사질 마사토를 2단으로 파내고, 1단에는 적석시설을 2단에는 매장주체시설인 석실을 갖추었다. 매장주체시설은 판석조석실로 지하식이며, 바닥에는 잔자갈을 깔았다. 석실은 개석을 덮고 그 윗부분에 황갈색 마사토와 적석층을 겹겹으로 3단을

32) 이영문·김승근, 1999, <<화순 지석묘군>>, 목포대 박물관.

목포대 박물관, 2000, <<화순 효산리, 대신리 지석묘군 발굴조사 약보고>>(유인물).

33) 목포대 박물관, 2001, <국도 27호선(고흥-별교간)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유인물).

34) 국립광주박물관, 2001, <<보성 동촌리유적>>(지도위원회의자료).

이루며 채웠고, 그 위에 상석을 올려두었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편, 관옥(40점), 석촉 등이 있다. 이곳 지석묘는 창원 덕산리 지석묘와 유사한 것으로 전남지역에서는 처음 조사된 것이다.

2) 청동기시대의 연구성과

청동기문화는 기원전 10세기경 지석묘 축조인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문화성격은 대체로 충청도지방의 송국리문화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영암 장천리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당시 주거지는 원형 내지 타원형이고, 중앙부에 타원형 주거지가 있는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가 대부분이며, 사용된 도구는 주로 토기와 석기이다. 청동기의 사용이 일반화되는 것은 청동기시대 후기이다. 청동기시대 후기의 유적으로는 화순군 대곡리유적이거나 함평군 초포리유적을 비롯하여 영산강유역에는 청동기를 출토시킨 유적이 적지 않다. 이들 유구는 적석목관묘이나 지석묘인 경우는 그 유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청동기의 거푸집[鎔範]이 영암군 구림리 부근에서 발견되어서 영산강유역에서 직접 청동기가 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장방형 주거지와 송국리형 주거지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송국리형 주거지이며, 서로 시기적인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었다³⁵⁾. 청동기시대 무덤에는 지석묘를 비롯하여 석관묘, 토광묘, 옹관묘 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지석묘의 경우 무덤이외에도 제단이나 묘표석(墓標石)으로서의 기능도 하였을 것이고, 그 상한연대도 10세기경까지 올려볼 수 있다고 보았다³⁶⁾. 생업 수단은 수렵과 채집 이외에도 농경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적극적인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동기문화는 철기문화가 시작되는 기원전 2세기말까지 지속되었다.

끝으로 청동기시대의 편년 문제이다. 호남지역의 청동기시대 편년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일찍 전남지방의 청동기문화를 두 시기로 나누어 전기는 동검 사용시기 이전이고, 후기는 동검 사용시기로 설정한 바 있다³⁷⁾. 이를 한국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 시기 구분 안³⁸⁾을 따를 경우에는 동검 사용시기를 중기와 후기로 세분할 수 있

35) 김규정, 1999,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호남고고학보>>9, 호남고고학회.

36) 이영문, 1999,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묘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호남고고학보>>9, 호남고고학회.

37) 최성락 1994,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 학연문화사.

38) 박순발 1993,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 문화>, <<한강유역사>>, 민음사.
하인수 1989, <영남지방 단도마연도기에 대한 신고찰>,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안재호 1996, <무문토기 취락의 변천>, <<석오윤용진교수 정년퇴임논총>>.

을 것이다. 즉 중기는 비파형동검 사용기로 송국리형 주거지가 등장한 시기이고, 후기는 세형동검 사용기로 점토대토기가 만들어졌던 시기이다³⁹⁾.

각 시기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前期)는 선 동검 단계로 기원전 10~8세기경이다. 이 시기는 장방형 주거지가 사용되었다. 이들 주거지는 남원 고죽동유적, 익산 영등동유적 등 전북지방에서는 나타나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원형 주거지(송국리형 주거지)도 이미 전기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유적이 없다⁴⁰⁾.

이 시기의 무덤에는 지석묘가 있고, 유물에는 무문토기와 함께 석촉, 석부, 반원형석도 등 석기류가 주류를 이룬다.

중기(中期)는 비파형동검이 사용되었던 시기로 기원전 7~5세기경이다. 주거지는 원형 주거지(송국리형 주거지)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원형 주거지는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지역까지 확산되었다. 무덤에는 지석묘와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등이 사용되었다. 유물에는 송국리형 토기, 삼각형석도, 석촉, 석검 등과 비파형동검, 동모 등이 있다. 이 시기는 요령지역 청동기문화의 여파가 전남지방까지 파급되었음을 볼 수 있다.

후기(後期)는 세형동검이 사용되었던 시기로 기원전 4~2세기경이다. 유구는 원형 주거지가 방형 주거지로 변화되었고, 무덤은 지석묘가 일부 남아 있었으며 새로이 적석목관묘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유물에는 단면 원형의 점토대토기, 흑도 등과 세형동검, 동모, 정문경, 청동방울 등 다양한 청동기가 사용되었으며, 청동기의 거뿔집[鎔範]이 영암군 구림리 부근에서 발견되어 청동기가 이 지역에서 직접 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9) 일부에서는 세형동검이 사용되었던 점토대토기 단계를 철기시대로 보아 청동기시대에서 제외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단면원형 점토대토기와 철기와의 공반관계가 불확실하고, 철기와 공반되는 것은 이보다 늦게 나타나는 단면삼각형 점토대토기이므로 모든 점토대토기를 철기시대에 속한다고 보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단면원형 점토대토기를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토기로 보고, 단면삼각형 점토대토기를 경질무문토기로 분류하여 철기시대의 유물로 보고 있다.

40) 파형동검이 사용되던 시기 이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중기로 비정한다.

이청규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열토기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보>>창간호.

송만영 2001, <남한지역 농경문화형성기 취락의 구조와 변화>, <<한국 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4. 철기시대

1) 조사현황 및 주요 유적

철기시대는 기원전 1세기 초부터 기원후 3세기 후반, 옹관고분의 발생 이전까지로 설정된다. 철기시대에는 새로운 철제도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토기도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와 다르게 경도가 높아지는 경질무문토기와 새로이 등장하는 연질의 타날문토기가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유적에는 주거지, 패총, 무덤(옹관묘와 토광묘) 등이 알려져 있다⁴¹⁾.

주거지는 순천 대곡리유적이 알려진 이래로 보성 죽산리, 영암 신연리, 광주 신창동·명화동·오룡동·일곡동·용봉동·치평동·쌍촌동, 무안 양장리, 보성 척령리 금평유적, 순천 조례동, 연향동 대석 및 용당동 대북유적, 장흥 지천리 지동유적 등과 서해안 고속도로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들 철기시대 주거지는 대체로 20여 기씩 집단적으로 형성하고 있으나 3세기대가 되면 수 십 기가 밀집하면서 취락지의 규모가 점차 커진다.

해남 군곡리패총이 1986~1988년에 목포대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어 철기시대 문화상을 보여 주었다. 이후 보성 척령리 금평패총이 전남대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고, 나주 수문패총과 해남 옥녀봉 패총 등이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무덤에는 옹관묘와 토광묘가 있다. 초기의 옹관묘(甕棺墓)는 광주 신창동유적에서 조사된 이래로 광주 운남동유적과 함평 장년리 당하산유적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주구토광묘의 주변에서도 옹관이 발견되는데 서해안고속도로구간 발굴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옹관은 그 크기가 점차 커지는데 3세기 후반에 이르면 일상용기 이외에도 매장을 위한 전용옹관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편 토광묘(土壙墓)는 최근 유적의 발굴을 통해 주변에 주구를 가진 것이 많이 조사되었다. 이를 주구묘(周溝墓) 혹은 주구토광묘(周溝土壙墓)라고 부른다. 서해안고속도로 발굴을 통해 주구묘의 주체가 토광묘임이 밝혀졌고, 고창 성남리유적, 영광 원흥리 군동유적 등을 비롯하여 여러 유적으로부터 기원전후에서 기원후 3~4세기에 이르는 많은 수의 주구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주구토광묘에는 주구의 형태가 방형, 타원형, 사다리꼴(梯形)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다리꼴의 이형 고분인 함평 만가촌(萬家村)·순촌 유적 등의 단계를 거쳐 옹관고분으로 발전되었다.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최성락, 2000, <호남지역의 철기시대-연구현황과 과제>, <<호남고고학보>>11, 호남고고학회.

(1) 해남 군곡리패총⁴²⁾

해남 군곡리유적은 1986~1988년간 3차에 걸쳐 발굴되었는데 패각층을 비롯하여 주거지와 토기요지 등이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경질무문토기, 경질찰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인데 주로 경질무문토기로 다양한 기형과 제작기법에서 무문토기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밖에 토제품, 골각기, 철기류, 석기류, 화천(貨泉; 중국 新나라의 화폐), 복골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의 연대는 상한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되고, 본격적으로 패각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2세기말에서 1세기 초반부터 기원후 3세기경까지 이다. 이후 보성 금평패총⁴³⁾에서도 당시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굴되었고, 영산강 중류인 나주 동강 수문패총⁴⁴⁾도 확인되었는데 이들 모두 비슷한 시기의 유적이다.

(2) 광주 신창동유적⁴⁵⁾

광주 신창동 유적은 1963년 서울대학교 발굴팀에 의해 조사되었는데 총 53기의 옹관묘가 밀집되어 있었다. 두 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구식으로 옹관 자체는 무문토기 계통의 연질이며, 소성도가 낮은 편이다. 출토유물은 철편 1점과 석기 1점이 있고, 주변에서 소형토기 수점, 돌도끼 1점, 돌화살촉 1점, 숫돌 1점, 철편 2점과 동제 검파두식 1점이 있다. 이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이후로 보이며, 그 성격은 유아나 소아의 무덤으로 보았다.

그리고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저습지와 토기가마 등이 조사되었다. 저습지에서는 각종 칠기류·무구류·농공구류·철용기·현악기·베틀부속구 등 다량의 목제유물과 민물패류, 인골을 비롯해서 선사시대 생활문화와 관계된 여러 자료, 그리고 벼껍질·탄화미·보리 등 곡물류, 오이씨·박씨 등 채소류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토기가마는 기존에 존재했던 환호(環濠)의 경사면을 이용한 것으로 가마의 내부에서는 다량의 무문토기와 방추차, 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고배와 옹, 발, 시루 등 기원전 1세기대 점토대토기 단계의 전 기종(器種)이 발견되었다.

42) 최성락, 1987-89, <<해남 군곡리패총>> I-III, 목포대 박물관.

43) 임영진 외, 1998, <<보성 금평 패총>>, 전남대 박물관.

44) 조현중·박중환·선재명, 1997, <<신발견 영산강유역 고고유적(1)>>, 국립광주박물관.

45) 김원용, 1964, <<신창리옹관묘지>>, 서울대 박물관.

조현중·장제근, 1992, <<광주 신창동유적>>, 국립광주박물관.

조현중·신상호·장제근, 1997,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1, 국립광주박물관.

(3) 서해안 고속도로구간 발굴⁴⁶⁾(그림 7·8)

1998~2000년에 조사된 서해안 고속도로구간에서는 철기시대 주거지와 주구토광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주거지가 조사된 유적은 함평 진양리 중랑, 죽암리 소명동, 함정리 무송, 영광 원흥리 마전·군동 등이 있다. 특히 함평 중랑유적과 소명동유적에서는 각각 200여 기의 철기시대 혹은 삼국시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구토광묘와 토광묘가 조사된 유적에는 함평 진양리 중랑, 영광 원흥리 군동, 원당, 화평리 하화 등이 있다. 특히 영광 원흥리 수동 토광묘에서는 철기와 새문양이 있는 이형청동기, 방제경이 함께 출토되었다.

(4) 장흥 지천리 지동유적⁴⁷⁾(그림 9)

이 유적은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지동마을에 위치한다. 1999년 탐진댐 수몰지구 공사용부지에 포함되어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 확인된 유구는 수혈주거지와 도랑유구, 지상 건물지, 구들, 성적이 불분명한 수혈유구 등이 있다. 수혈주거지는 총 29기로 철기시대 수혈주거지 17기와 삼국시대 수혈주거지 12기로 구분된다.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수혈주거지는 규모가 4m 내 외의 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1호를 제외한 주거지에서는 화덕이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이중구연호, 시루, 발형토기, 완형토기, 숫돌, 어망추 등이 있다. 수혈주거지군은 유적의 남쪽 탐진강에 인접되어 형성된 마을이며, 북쪽은 내륙과 접해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험요소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도랑을 돌리고 주위에 목책(木柵)으로 추정되는 기둥구멍이 일부 노출되었다.

(5) 함평 월야 순촌유적⁴⁸⁾(그림 10)

1999~2000년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A, B, C지구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A지구에서는 주구토광묘 37기, 옹관묘 12기, 토광묘 3기, 주거지 1기 등이, B지구에서는 주구토광묘 5기, 옹관묘 1기, 토광묘 2기 등이, C지구에서는 주구토광묘 2기, 옹관묘 1기, 석개토광묘

46) 목포대 박물관 외, 2000, <서해안 고속도로구간 발굴조사 약보고서>(유인물).

최성락·한옥민, <<함평 성남·국산유적>>, 목포대 박물관.

최성락 외 2001, <<영광 군동유적>>, 목포대 박물관.

47) 최성락 외, 2000, <<장흥 지천리유적>>, 목포대 박물관.

48) 최성락·박철원·최미숙 2001, <<함평 월야 순촌유적>>, 목포대 박물관.

1기, 석관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주구묘의 주묘제가 대부분 토광묘이나 한 기(A-32호)만 주묘제가 옹관이었다.

2) 철기시대의 연구성과

철기시대는 기원전 1세기 초부터 기원후 3세기 후반 옹관고분의 발생 이전까지로 설정되며 기존의 청동기문화를 바탕으로 해양을 통해 새로운 철기 제조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었다. 철기시대에는 새로운 철제도구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토기도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와 다르게 경도가 높아지는 경질무문토기와 새로이 등장하는 연질의 타날문토기가 사용되었다.

철기시대의 주거지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그 변천을 연구한 논고에서는 대체로 원형주거지에서 방형 혹은 장방형 주거지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⁹⁾. 남해안에서 분포하는 패총의 출현과 한랭한 기후와 연결하여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⁵⁰⁾. 그러나 패총은 이미 기원전 1세기경에 출현하고 있어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철기문화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과 일본에 이르는 해로의 형성과 관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덤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적석목관묘 대신에 새로운 형식인 옹관묘와 토광묘로 변화되었다. 철기시대의 토광묘는 석재를 사용하다가 점차 목재를 사용하였고, 옹관묘와도 공존하다가 점차 옹관고분으로 발전되었다고 보았다⁵¹⁾.

즉 철기시대의 주묘제는 옹관묘가 아니라 토광묘 혹은 주구토광묘임을 알게 되었다. 주구의 주체부에는 옹관묘가 아닌 토광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주구토광묘는 기원후 2~3세기 경 서해안지역인 보령 관창리, 서천 당정리, 익산 영등동 등지에서 발견된 이래 호남의 서해안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영산강유역의 옹관고분으로 발전해 나갔다⁵²⁾.

이들 철기시대 주거지나 주구묘(주구토광묘)를 마한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⁵³⁾. 그러나 주거지나 주구토광묘가 특정 정치체와 연결된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일 것이다. 특히 주거지의 경우, 마한의 주거지가 어떠한 특징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한의 주거지와 백제의 주거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49) 최미숙 2001, <전남지방 철기시대 주거지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4-2, 역사문화학회.

50) 서현주, 2000, <호남지역 원삼국시대 패총의 현황과 형성배경>, <<호남고고학보>>11, 호남고고학회.

51) 한옥민 2001, <전남지방 토광묘 성격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13, 호남고고학회.

52) 최완규 1997, <<금강유역 백제고분의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53) 최완규, 2000, <호남지역 마한분묘 유형과 전개>, <<호남고고학보>>11, 호남고고학회.

김승옥, 2000, <호남지역 마한 주거지의 편년>, 상계서.

마지막으로 편년문제인데 철기시대 문화를 네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⁵⁴). 1기(早期)는 청동기사회에 철기가 유입되는 단계로 기원전 2세기경이다. 이 시기의 묘제는 적석토광묘와 토광묘가 있다. 적석토광묘는 석관묘계열로 철기시대 토광묘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추정되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장수 남양리유적이 있다. 그리고 토광묘유적으로는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출토된 익산 평장동 신동리유적과 단면원형 점토대토기가 출토된 군동유적(라 B-3호) 등이 조사되었다.

2기(前期)는 철기문화가 시작되는 단계로 기원전 2세기 말 혹은 1세기 초에서 기원후 1세기 전반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토광묘, 합구식 옹관 등이 나타나고, 토기로는 경질무문토기가 주로 사용된 시기이다. 대표적인 유적에는 광주 신창동유적, 해남 군곡리패총 II·III기층이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구간인 영광 군동유적에서는 흑색마연토기를 부장한 방형의 주구토광묘(라 A-18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기(中期)는 철기문화가 성장하는 단계로 기원후 1세기 중반에서 2세기 중반까지이다. 주구토광묘가 중심이며 주변에 옹관묘가 일부 나타난다. 토기는 경질찰문토기와 함께 타날문이 약하게 찍힌 연질토기가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해남 군곡리 IV기층과 최근 조사된 영광 군동유적(라 지구) 등이 있다.

4기(後期)는 철기문화가 발전되는 단계로 기원후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후반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주구토광묘가 많아지고, 주구의 형태도 다양해진다. 그리고 옹관도 점차 커지면서 단독묘로 발전되었으며 옹관고분으로 발전되기 직전단계이다. 대부분의 유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Ⅲ. 전남지역 선사시대 유적의 성격

1. 선사시대 유적의 특징

최근 조사된 전남지역 선사시대 유적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이 확인되는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보성강유역에 이어 영산강유역에서도 구석기가 집중적으로 채집되면서 구석기시대 유적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대체로 이들 유적에서는 중기

54) 최성락, 2000, <호남지역의 철기시대>, <<호남고고학보>>11, 호남고고학회.

구석기시대와 후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층이 확인되었다. 최근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퇴적층은 영산강유역에 넓게 발달하고 있어 지표조사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유적이 발견될 것이다. 또한 이들 유적에 대한 정밀한 학술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영산강유역에 처음 자리잡은 사람들의 생활상을 좀 더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식묘이다. 이미 전남지역이 지식묘의 집중 분포지임은 잘 알려져 있으며 영산강유역에도 많은 지식묘가 분포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화순 대신리와 효산리 일대의 지식묘가 2001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식묘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 지식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당시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유적이다. 그러나 지식묘는 최근의 개발공사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묘가 분포하는 지역은 낮은 구릉이나 평지이므로 농경지의 정리나 각종 공사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 1990년대에 많은 훼손이 불가피하였으나 앞으로 이들 유적에 대한 보존대책이 철저히 요구된다.

셋째, 서남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패총이다. 패총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통해 해로(海路)가 발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철기시대에는 중국에서 일본에 이르는 해로가 형성되었고, 이를 통한 교역망(交易網)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전남지역은 그러한 교역망 속에 위치하면서 다른 지역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또한 나주지역에서 확인된 수문패총은 영산강 상류의 광주 신창동유적과 남해안의 해남 군곡리유적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서로 동일한 문화상을 보여주고 있어 당시의 문화가 해안으로부터 강을 통해 내륙까지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호남지역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는 주구토광묘이다. 주구토광묘는 토광묘에 주구가 둘러진 무덤으로 단독 토광묘와 함께 기원전 1세기경에서 기원후 3세기경까지 전남지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무덤이다. 또한 주구토광묘는 서해안고속도로공사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는데 주구의 형태가 네모꼴(方形)→타원형(橢圓形)→사다리꼴(梯形) 등으로 변화되다가 3세기 후반 무덤의 중심이 토광묘에서 옹관묘로 교체되면서 옹관고분으로 발전하게 된다.

2. 지역 구분과 타 지역과의 비교

전남지역은 크게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구분된다. 서부지역은 영산강유역과 서남해안지역이고, 동부지역은 섬진강과 보성강유적과 남해안지역이다. 먼저 두 지역간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경우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청동기시대에 이르면 두 지역 사이에는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지석묘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서부지역에서 석관형이 많은 데 비해 동부지역에서는 석곽형과 위석형이 많다. 출토유물에서도 동부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 등 출토유물이 풍부한 반면에 서부지역에서는 출토유물이 빈약한 편이나 세형동검과 관련된 유물이 나타난다⁵⁵⁾. 철기시대에는 같은 성격의 패총과 토기가 분포하는 등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지만 지역적인 차이도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서부지역에서는 원형계에서 방형 내지는 장방형으로 변화되나 동부지역에서는 원형 내지는 타원형이 늦게까지 지속하였다. 또한 서부지역에 보이는 주구토광묘가 동부지역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시기 고분의 출현과도 관련되는데 서부지역에서는 3세기 후반에 독특한 옹관고분이 등장하지만 동부지역에서는 뚜렷한 고분이 출현하지 않고, 6세기경에는 가야계의 석곽분이 나타난다.

다음은 전남지역과 타 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자. 구석기문화의 경우 다른 지역과의 관계를 자세하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신석기문화는 과거에 서해안지역과 관련된다고 보아왔으나 신석기유적이 점차 조사되면서 서해안보다는 남해안의 신석기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⁵⁶⁾. 반면 청동기문화의 경우에는 충청지역과 관계가 크다. 송국리형 주거지나 송국리식 토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산강유역의 청동기도 금강유역의 청동기와 비교된다. 다만 지석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은 충청지역과의 차이점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철기문화는 좀 더 넓은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다. 즉 해로를 통해 중국지역이나 일본지역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해로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왜인전(倭人傳)에도 나타나고 있고, 해남 군곡리패총을 비롯한 남해안의 당시 유적으로부터 중국 화폐인 화천(貨泉)과 오수전(五銖錢), 개인의 흥복(凶福)을 점쳤던 복골(卜骨) 등 중국적인 유물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고고학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고성 동외동패총에서 발견되었던 인문도(印文陶)가 보성 금평패총에서도 발견되었고, 역시 고성 동외동패총에서 발견되었던 새문양이 있는 이형청동기가 방제경(倣製鏡)과 함께 영광 수동유적에서도 발견되었으므로 중국과의 교류도 짐작할 수 있다⁵⁷⁾. 한편 김해패총이나 사천 늑도패총 등과 같이 경남지역에 분포하는 철기시대의 유적에서는 일본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유물이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늑도패총에서는

55) 이영문 1987, <전남지방 지석묘의 성격>, <<한국고고학보>>20, 한국고고학회.

56) 최성락 1990, <서남해도서지역의 선사문화>, <<도서문화>> 7,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57) 최성락 2000, <호남지역 철기시대>, <<호남고고학보>>11, 호남고고학회.

일본 야요이시대(彌生時代) 중기의 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기도 한다. 한편 영남지역과의 차이점으로는 영남지역에서 토광묘가 목관묘와 목곽묘로 구분되고, 2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하게 되었으나, 전남지역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없으며 3세기 후반에 이르면 주된 무덤이 주구토광묘에서 옹관묘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지역의 문화는 시대에 따라 관련이 깊은 지역이 달랐고, 그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선사시대 사회의 변천

구석기시대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하면서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였을 것이다. 영산강유역에서는 아직 구석기인들의 생활근거지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사람들은 비교적 작은 집단을 이루면서 이동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한편 신석기시대에 대한 연구도 극히 부진하다. 도서지역에서 발견되는 패총의 규모는 소규모이므로 작은 집단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여수 송도패총에서 발견된 주거지도 2기에 지나지 않고, 함평 당하산 유적에서 발견된 화덕자리나 부석주거지도 그 수가 적어 지속적인 정착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취락을 통해 당시 사회형태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서울 암사동유적, 봉산 지탑리유적 등에서는 집단적인 취락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씨족단계를 넘어서 부족사회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는 사회발전단계설에 의하면 씨족사회(氏族社會)와 부족사회(部族社會)에 해당하며, 또한 이 시기는 계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평등사회(平等社會)일 것으로 이해된다.

지석묘가 주 무덤인 청동기시대 전기와 중기의 사회적인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석묘사회를 일부에서는 사회의 계층화가 이루어진 족장사회(族長社會)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청동기와 관련이 없으며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축조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떻게 보면 지석묘사회를 사회계층의 분화가 미약한 사회(즉 공동사회, 부족사회)로 보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남의 동부지역 지석묘에서 비파형동검을 비롯하여 다량의 부장품이 출토되었고, 보성 동촌리 지석묘에서도 3단의 석축 시설과 함께 석축, 관옥, 흉도 등이

출토된 예를 본다면 이들 견해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의 지식묘를 중심으로 소형의 지식묘가 주변에 분포하는 경우로는 여수 평여동 산본지석묘, 순천 우산리 내우지석묘 등이 있어 당시 사회의 구조적인 면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지식묘사회는 곧바로 족장사회(chiefdom society)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의 복합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세형동검이 사용되었던 청동기시대 후기의 사회적인 성격이다. 이 시기를 고고학계에서는 대부분 족장사회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식묘의 존재여부가 문제이다. 전남지방의 경우 영암 장천리 지식묘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었고, 무안 월암리 지식묘 출토 곡옥(曲玉) 등은 함평 초포리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이므로 세형동검 사용시기에도 지식묘가 존재하였음을 말해준다. 전남지방에서 지식묘와 세형동검과의 관계는 기존의 지식묘 축조집단이 세형동검 등 청동기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세형동검 등의 발달된 청동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사회는 이미 지식묘만의 사회는 아니다. 이 시기에는 지식묘와 함께 청동기를 많이 부장한 적석목관묘(積石木棺墓)가 존재하였다. 이 단계의 지식묘는 지식묘의 내부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타 무덤과 공존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 사회의 복합화는 한층 진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후기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청동기문화가 발달되었고, 완전한 족장사회의 단계에 진입하였을 것이다⁵⁸⁾.

이미 시작된 사회의 계층화는 철기시대에 이르러 철기라는 새로운 도구가 사용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철기시대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장신구의 발달과 복골 등 새로운 풍습은 당시 사회가 점차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철기시대의 사회는 이미 농경이 발달된 단계임은 광주 신창동 출토 목기(木器)들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농경 이외에도 수렵과 채집을 병행하였을 것이다. 철기시대의 무덤에는 주구토광묘와 옹관묘가 있는데 옹관묘는 소아용이거나 주구토광묘에 배장되고 있다. 주구토광묘는 중심의 토광묘가 처음에는 지하식에서 점차 지상식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아 저분구묘로 인식되고 있고, 대상부에 옹관이나 토광를 추가장한 다장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부장품에서 특별한 것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규모가 대형화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광 수동 토광묘에서는 새모양의 이형청동기와 방제경이 발견되어 청동기시대에 나타난 계층화가 좀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58) 최성락 1996, <전남지방에서 복합사회의 출현>, <<백제논총>>5, 백제개발연구원.

시기의 사회는 족장사회 중에서도 한층 진전된 복합 족장사회(複合 族長社會)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옹관고분이라는 독특한 무덤을 만들면서 고대사회를 발전시켜 나갔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전남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조사현황과 그 결과 얻어진 성과들을 정리해 보았다. 전남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조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 활발해졌고, 1990년 이후 유적의 발굴조사는 급증하였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영산강유역에서도 구석기시대 유적이 활발하게 조사되었고, 지식묘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철기시대의 패총과 무덤인 주구토광묘가 새로이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대의 편년과 유물·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남지역은 문화적으로 동부와 서부 등 두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시대의 문화양상에 따라 관련이 깊은 지역이 달랐다. 즉 청동기문화는 충청지역과 관련되었으나 철기문화는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이르는 넓은 지역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선사시대의 사회가 평등사회에서 계층화된 족장사회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시대의 문화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것은 고고학자료의 수집이 주로 제한적인 구제발굴에 의존하고 있고, 고고학연구도 유물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적이 뚜렷한 학술발굴이 이루어져야 하고, 고고학 자료의 분석이 좀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고학에서 당시 문화의 복원은 결코 개별적인 고고학 자료의 연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시 문화를 해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한 모든 고고학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고고학 이론에 의해 문화를 복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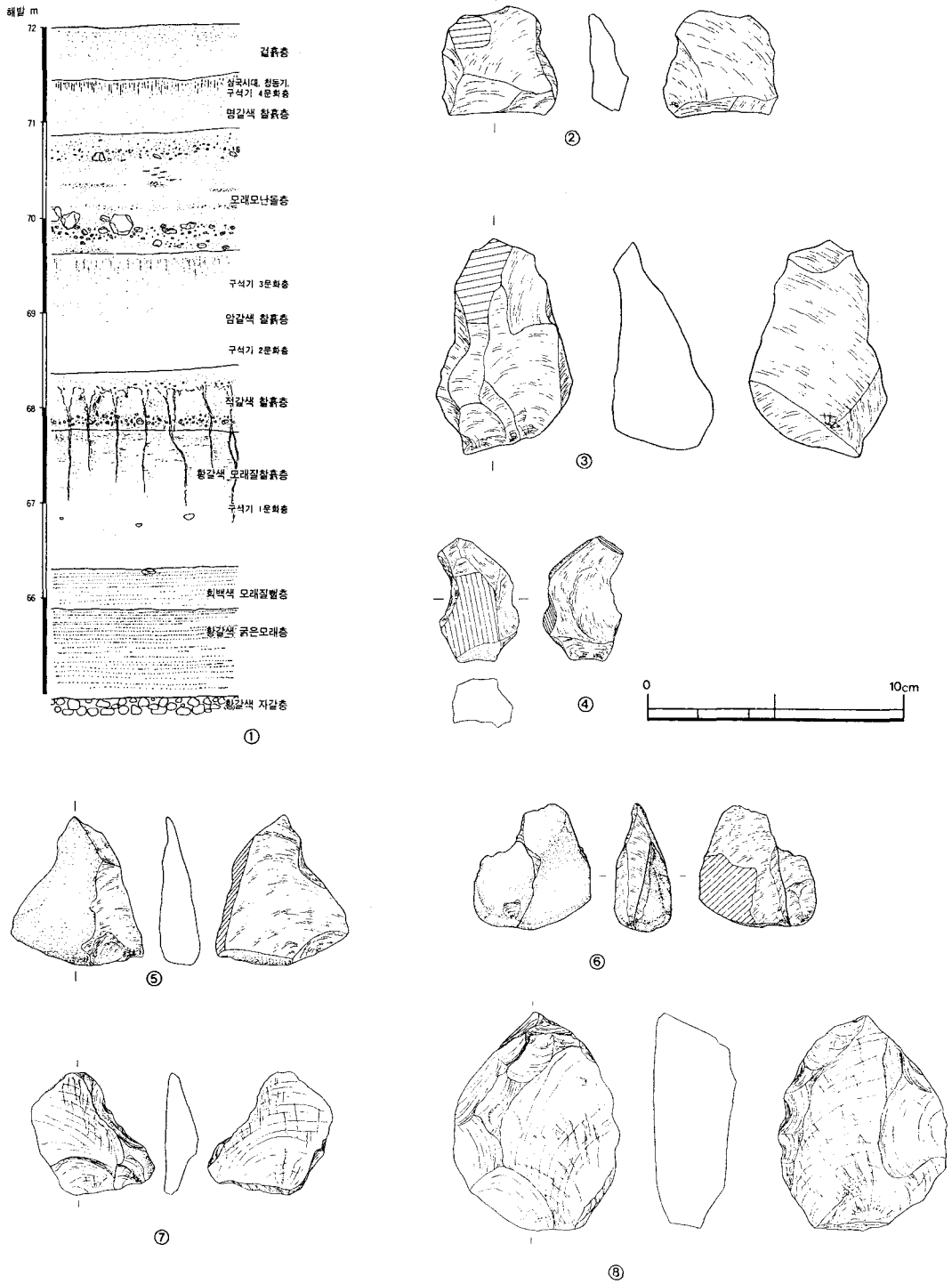


그림 1. 순천 죽내리유적 층위 및 출토유물
(제1문화층 : ②·③, 제2문화층 : ④·⑤, 제3문화층 : ⑥, 제4문화층 : ⑦·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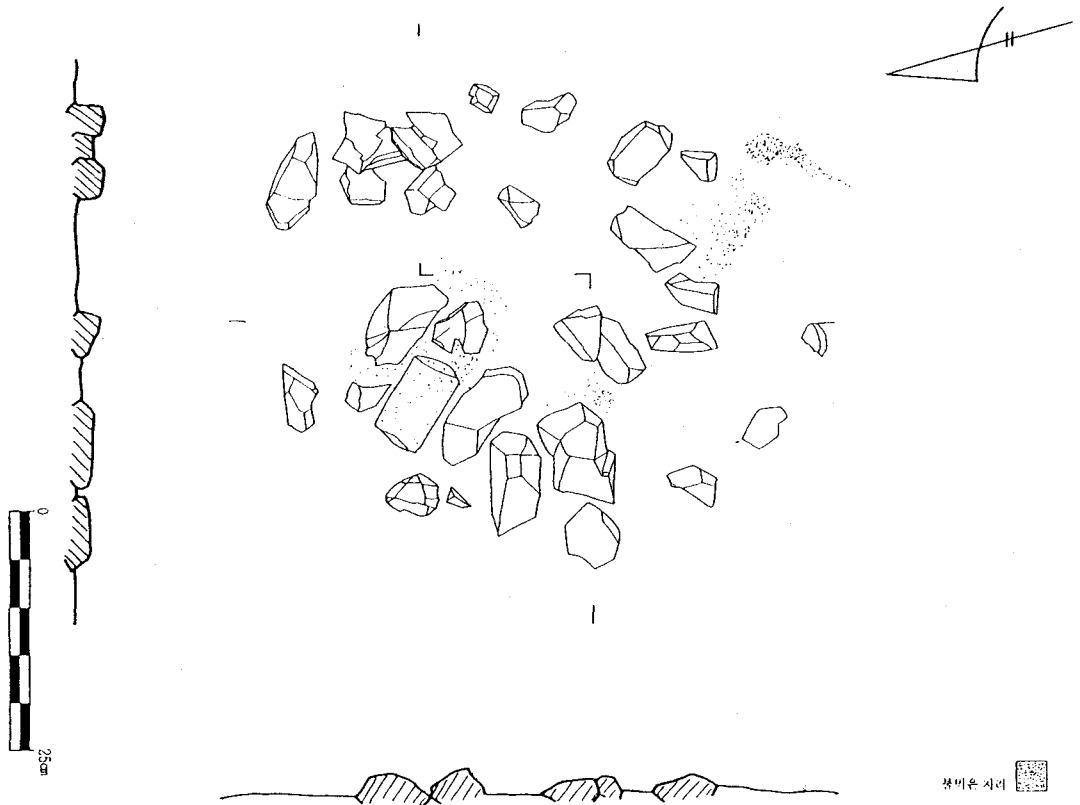


그림 2. 함평 당하산유적 신석기시대 1호 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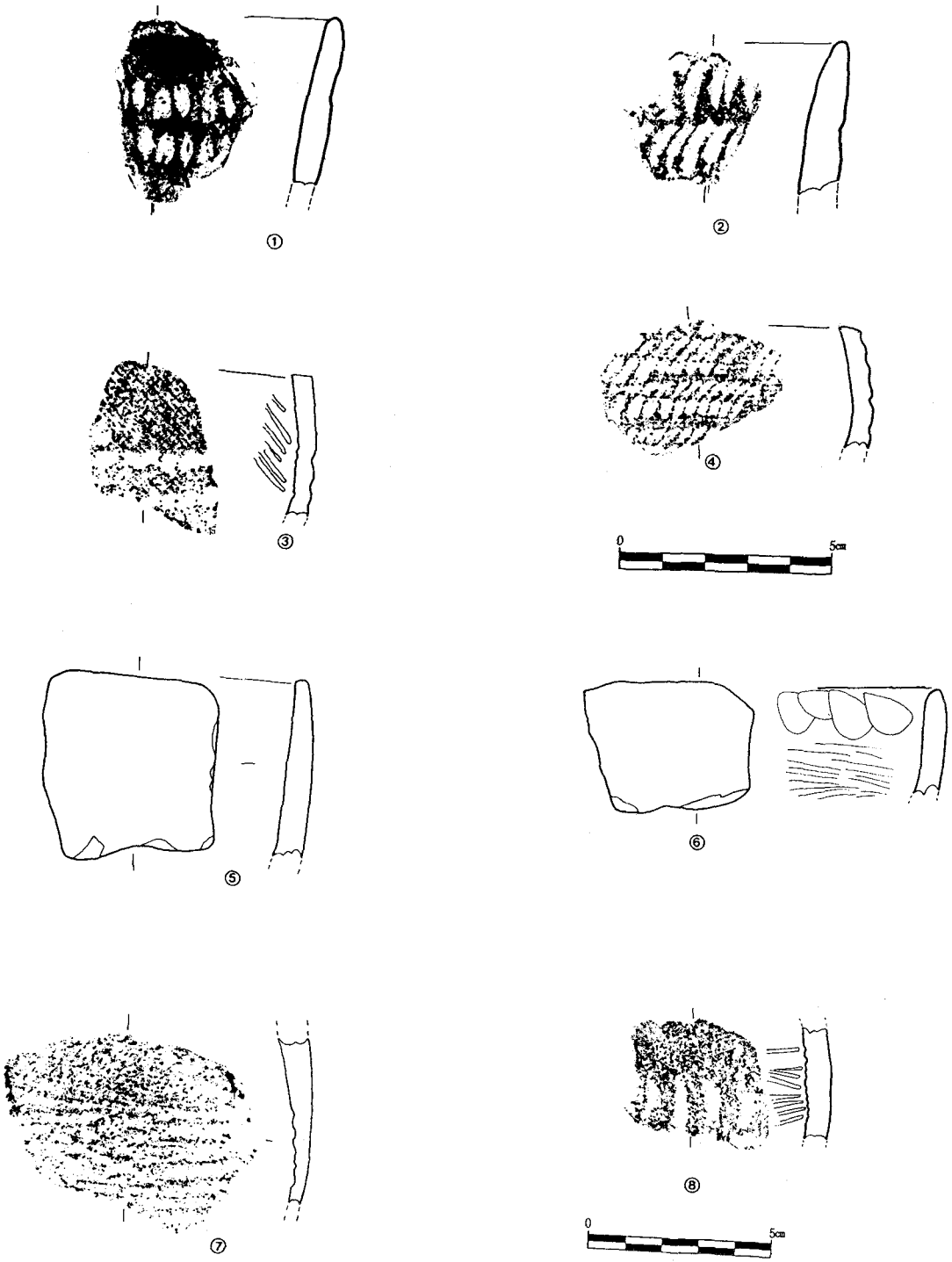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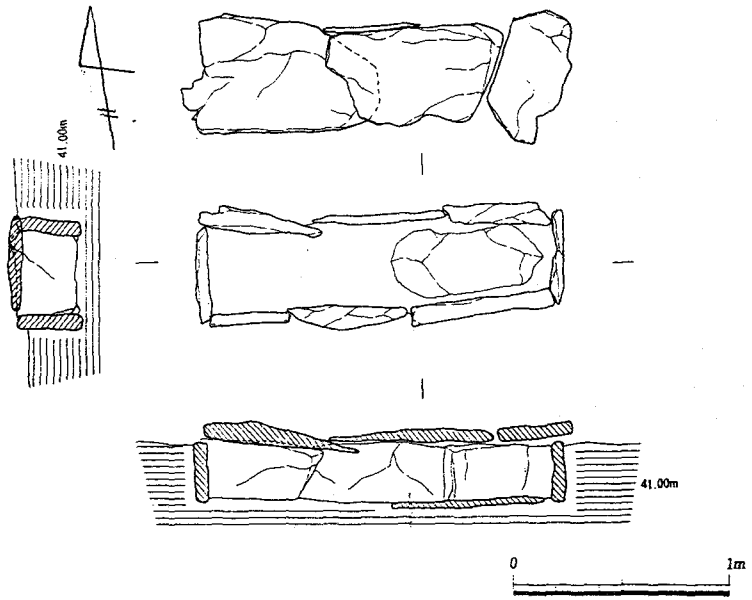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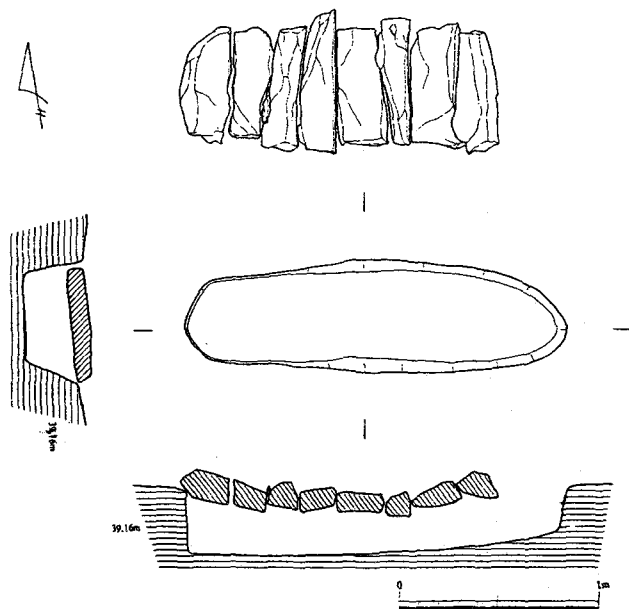


그림 3. 함평 당하산유적 신석기시대 출토유물



① 1호 석관묘 평·단면도



② 7호 석개토광묘 평·단면도

그림 4. 함평 용산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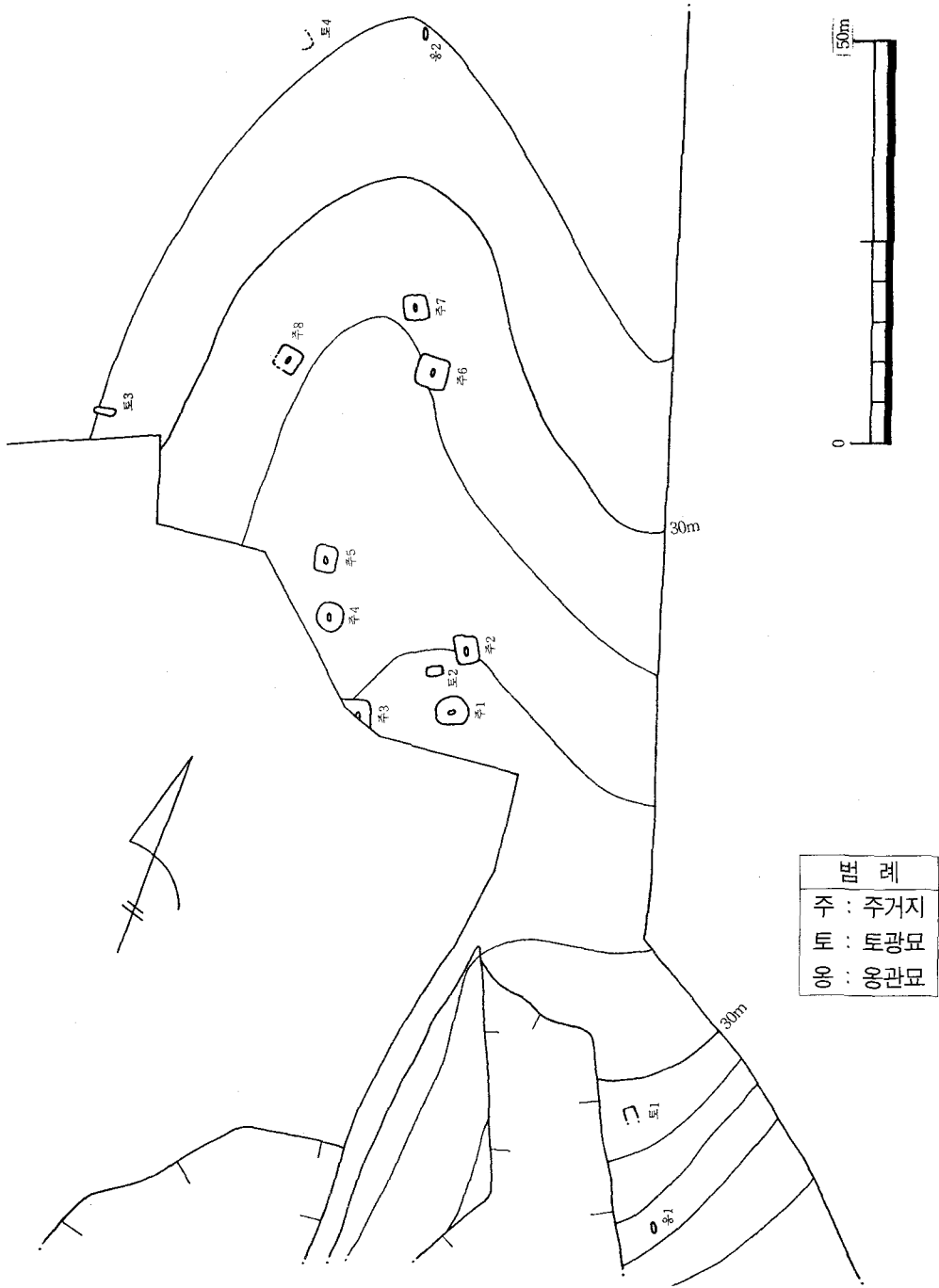


그림 5. 영광 군동유적 B지구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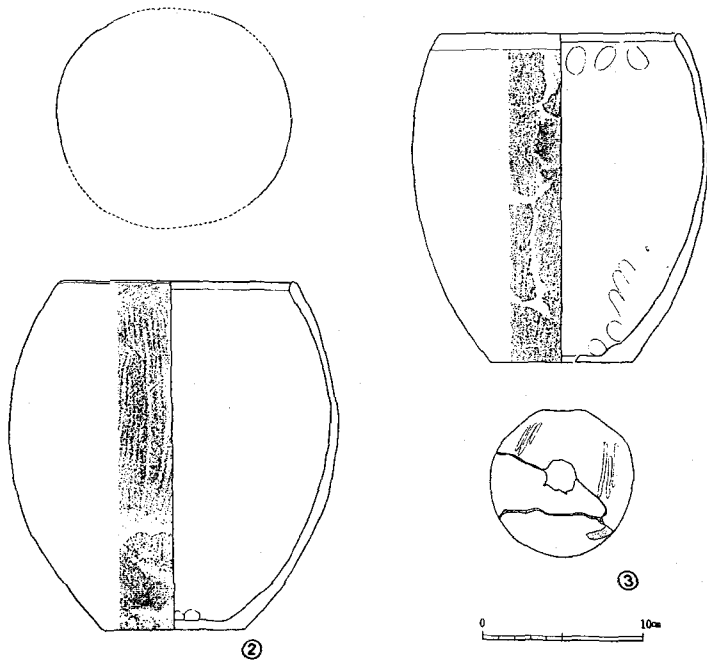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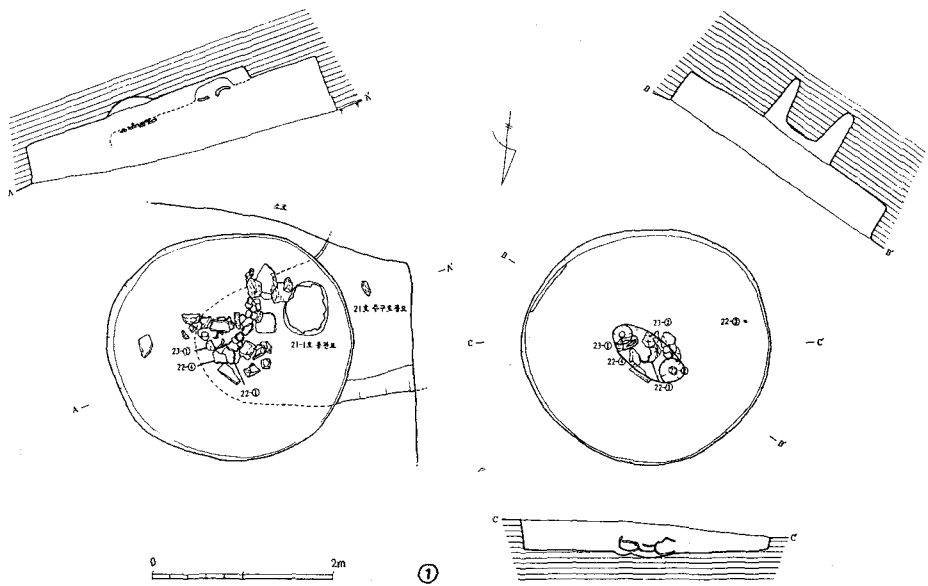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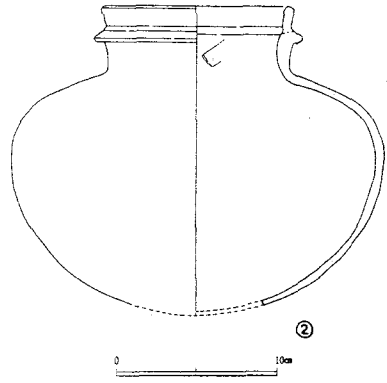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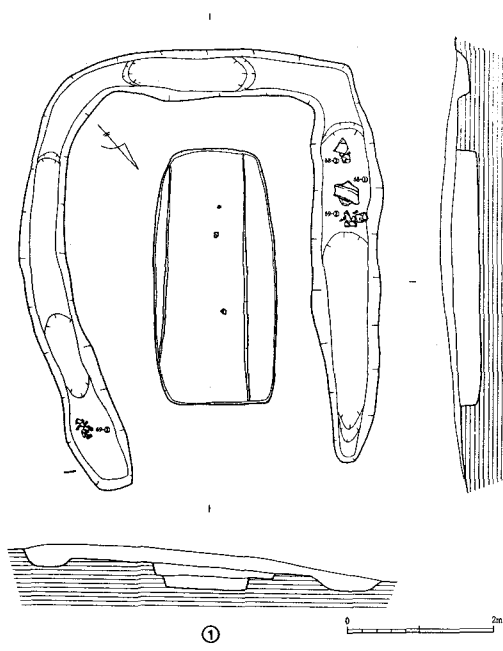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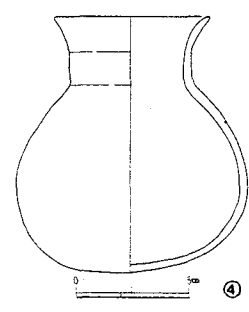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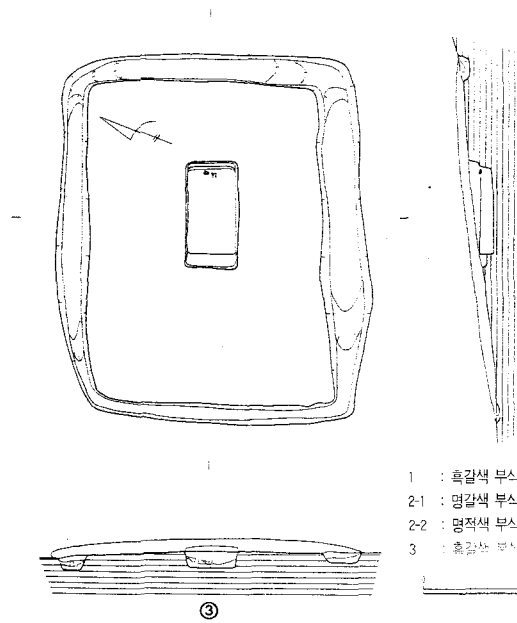


그림 6. 영광 군동유적 A-2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A-11호 주구토광묘 및 출토유물



A-18호 주구토광묘 및 출토유물

- 1 : 흑갈색 부식토
- 2-1 : 명갈색 부식토
- 2-2 : 명적색 부식토
- 3 : 흑갈색 부식토 (사질성분 다량포함)

그림 7. 영광 군동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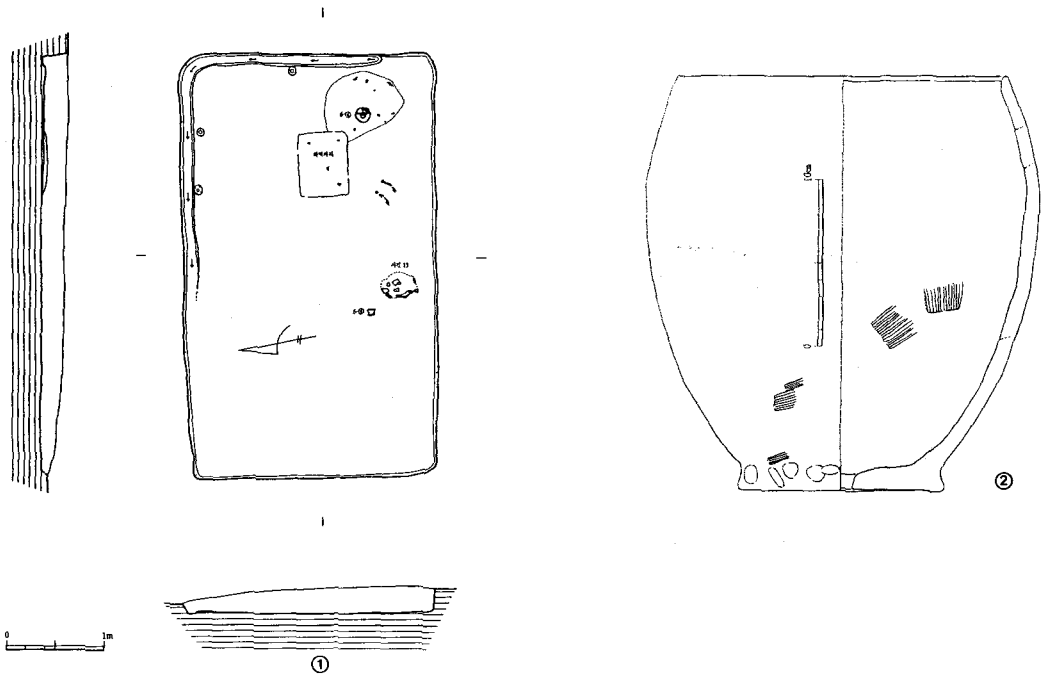


그림 8. 영광 근동유적 A-11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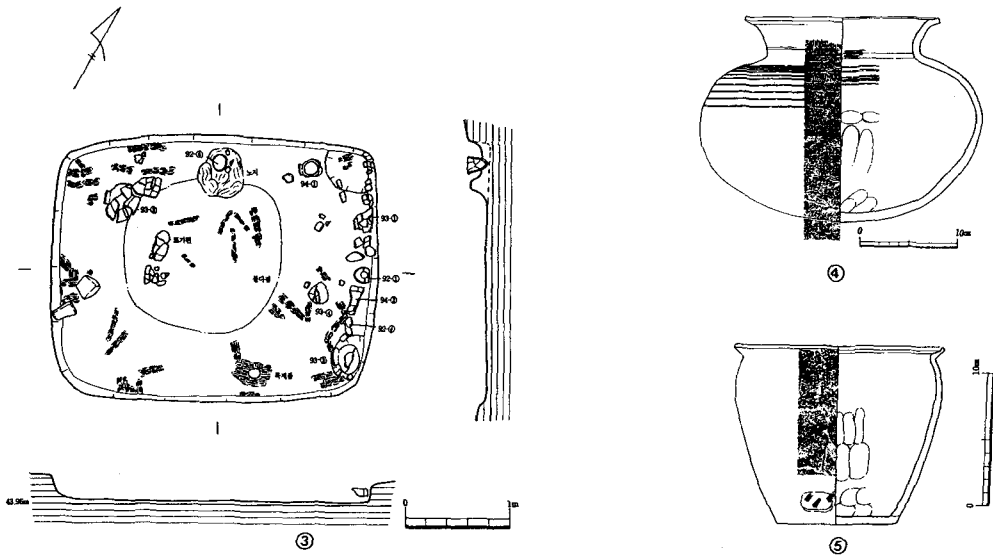


그림 9. 장흥 지천리 지동유적 가-14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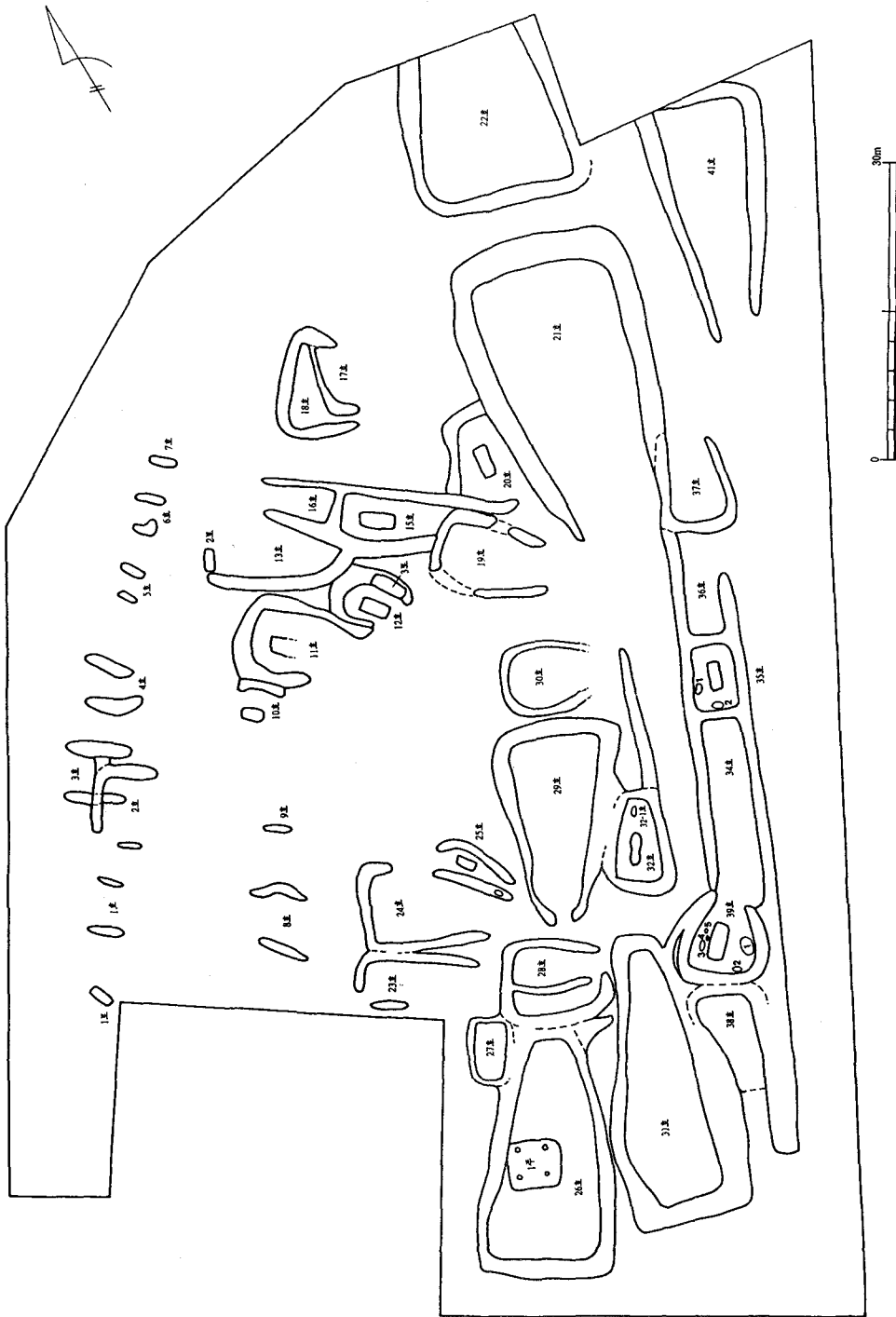


그림 10. 함평월야순촌유적 A지구 유구배치도

Results of the Studies on the Prehistoric Archaeology in Jeonnam Province

Choi, Sung- Rak

The researches on the prehistoric sites in Jeonnam Province started in 1970s. During 1980s and 1990s, excavations increased and their results also became larger than before. For example, the paleolithic sites were excavated along the Yeongsan River basin recently. The dolmens in the Hwasun area were registated to World Cultural Heridage and were revaulated. And the shellmounds and the pit-tombs with ditch of the Iron Age were identified. With this results, the chronology of each Age and some studies about artifacts and features were also studied.

Jeonnam province is culturally divided into two areas. The Chungcheong regions or Yeongnam region would be connected with Jeonnam province according to the cultural charateristics of each Age. And the prehistoric society developed from egalitarian society to stratified chiefdom society.

But the studies about the culture of each Age are not enough, because most of excavations were salvage excavations and most studies concentrated on the analysis of artifacts and features. To solve these problems, we have to excavate sites on purpose, and analyze all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sites.